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주랑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Mediated Effects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Ju-Rang Han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79명의 학생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5.0 program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부분 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하기를 권고한다.

주제어 : 간호전문직관,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 대학생, 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79 nursing students in S university of Gyeonggi-do,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5.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Also, nursing professionalism affected social responsibility and self-regul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results are recommended to be applied by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regulation in order to produce nurses with social responsibility in university.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Social Responsibility, College Student,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 Ju-Rang Han(jrhan27@seojeong.ac.kr)

Received October 26,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December 3,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인은 전문적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간호사는 업무특성 상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및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의료인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적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직업인으로 대상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함에 있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이란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옹호와 조직이나 사회의 이슈에 대한 행동이나 관심[1]이다. 대한간호협회는 한국간호사 윤리선언(2014)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2013)에서 간호전문직의 사회적 소명과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간호학생들은 임상현장에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윤리와 원칙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사회적 책임은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닌 만큼 대학에서는 간호전문지식을 습득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미국의 Emory 간호대학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교과과정은 물론 비교과과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전공교육만족과 간호전문직관[3], 메타인지와 셀프리더십, 간호전문직관[4,5]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기업 등 조직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간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개인적인 만족은 물론 간호의 가치를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6] 간호 및 간호사에 대한 인상이나 신념, 관념의 총합이며 간호나 간호활동에 대한 체계적 견해 혹은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직업적 견해를 말한다[7]. 직업이 재능과 소질을 기반으로 개인의 개성 발휘와 자아실현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전문직은 전문적 기술과 특별한 능력을 물론 봉사성과 비영리성을 내포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은 사회에 헌신하고자하는 이타적 동기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간호전문직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5], 간호전문직관이 자기성찰 및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8]. 그러나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기조절은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과 욕구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말한다[9]. 자기조절은 개인의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행위자로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어떠한 결정을 행동으로 실행할 때 실패를 하는 것은 자기조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9]. 자기조절의 과정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의식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9]. 따라서 개인이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또는 행동이나 욕구를 조절하거나 자원을 활용하는 것 등은 자기조절의 측면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타인의 요구에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10]. 즉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고 위로해 주는 친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사고 등을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자기조절은 이타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는 간호전문직관이나 사회적 책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효과나 도덕교육 혹은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9-11]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문직관이나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 및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관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의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함양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

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의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기조절을 매개로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S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대학의 2,3학년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이해할 수 있는 3학년 및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185부였으며 이 중 응답이 충분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179부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 까지 수집되었다.

G*Power 3.1.9.4를 활용하여 표본의 수를 산정하였으며, 효과크기는 .15, 유의수준 α 는 .05, 검정력은 95%로 설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으로 산정한 적정 표본수는 107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충족되었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됨을 충분히 알렸다. 또 본 설문은 대상자의 자유에 의거한 자발적인 참여이며, 참여 중에도 중단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중단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 등(2005)[12]이 개발한 도구를 한 등[13]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인식 5문항,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간호의 역할 2문항과 간호전문성 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한 등 [13]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8이었다.

2.4.2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윤[14]이 번안하고 수정한 Kuhl과 Fuhrmann(1998)의 자기조절능력도구 중 신[15]이 사용한 자기조절능력 하위요인인 자기조절양식 도구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신[1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이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7이었다.

2.4.3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Conrad와 Hedin(1985)이 개발하고 김[16]이 번역한 도구를 정[17]이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한 18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성 수행 5문항, 책임성 태도 6문항, 책임성 효력 4문항, 책임성 능력 3문항이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사회적 책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정[17]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로 Cronbach' α 값이 .79~.85의 범위에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9 이었다.

2.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간호전문직과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간호전문직,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실시하였다.
- 간호전문직과 사회적 책임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Baron과 Kenny[17]의 3단계 절차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4.92%(152명)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57.54%(103명)로 4학년보다 많았다. 출신 고등학교는 이과계 46.37%(83명), 문과계 45.25(81명)%, 기타 8.38%(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군이 56.98%(102명), 없는 군이 43.02%(77명)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7 (15.08)
	Female	152 (84.92)
Grade	3 rd year	103 (57.54)
	4 th year	76 (42.46)
High school	Natural Science	83 (46.37)
	Liberal Arts	81 (45.25)
	Other	15 (8.38)
Religion	Yes	102 (56.98)
	None	77 (43.02)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5점 만점에 3.76±0.51 점이었으며, 자기조절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4±0.65점이었다. 사회적 책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0±0.48점이었다(Table 2).

3.3 간호전문직관,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자기조절($r=.336, p<.001$), 사회적 책임($r=.473,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조절은 사회적 책임($r=.568,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2. Level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Social responsibility (N=179)

Variable	Minimum	Maximum	M±SD
Nursing professionalism	2.54	4.38	3.76 ± 0.51
Self-regulation	2.73	3.68	3.24 ± 0.65
Social responsibility	3.30	4.20	3.70 ± 0.48

Table 3. Correlati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Social responsibility (N=179)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Social responsibility
	r(ρ)	r(ρ)	r(ρ)
Nursing professionalism	1		
Self-regulation	.336*	1	
Social responsibility	.473*	.568*	1

* $p<.001$

3.4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으며, Baron과 Kenny[18]의 3단계 절차로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에 의해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이 매개변수인 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으며($\beta=.336, p<.001$) 설명력은 10.8%이었다. 2단계 분석으로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으며($\beta=.473, p<.001$) 설명력은 22.0% 이었다. 3단계 분석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책임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호전문직관($\beta=.318, p<.001$)과 자기조절($\beta=.461, p<.001$) 모두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책임 간의 β 값은 2단계 .473에서 3단계 .318로

Table 4.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Social responsibility (N=179)

Step	Variable	β	t	p	Adjusted R ²	F	p	VIF
1	Nursing professionalism → Self-regulation	.336*	4.750	< .001	.108	22.560	< .001	1.000
2	Nursing professionalism → Social responsibility	.473*	7.146	< .001	.220	51.072	< .001	1.000
	Nursing professionalism, Self-regulation → Social responsibility				.406	61.845	< .001	
3	Nursing professionalism → Social responsibility	.318*	5.188	< .001				1.127
	Self-regulation → Social responsibility	.461*	7.522	< .001				1.127

Sobel test : Z=4.026, p<.001

* $p<.001$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부분적으로 매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4.026($p < .001$)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지수는 1.878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분산팽창 계수(VIF) 10미만, 공차한계(Tolerance) .88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결과 논의점은 아래와 같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19]의 연구에서 3.71점, 이 등[20]의 연구에서 3.73점과 유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중'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은 대부분 3.5점 이하를 보이고 있다[21-23]. 이러한 결과는 이 등[24]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 이미지, 전문직 자아개념 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 나가 간호업무에 임하면서 전문직 자아개념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낮아지면서 간호전문직관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두 집단 간 간호전문직관의 수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은 5점 만점에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유 등[25]의 연구에서 3.40점,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연구한 박 등[26]의 연구에서 3.41점 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도구의 차이 등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같은 도구를 활용한 추가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1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 등[27]의 연구에서 자기조절이 3.49점인 점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3, 4학년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학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른 자기조절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자기조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은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등[28]의 연구에서 3.39점, 김[29]의 연구에서 3.37점과 유사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의 정도는 '중'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 등[28]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책임의 인식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 중 사회적 책임성의 의무는 높았으나 사회적 책임성의 능력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의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 등[28] 및 한 [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4], 전공만족도[30]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으며, 앞서 논의된 것처럼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31]. 따라서 대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은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적 매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전문직관은 사회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조절을 통한 간접적 영향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강하고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질수록 사회적 책임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은 개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등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 간호사들은 24시간 운영되는 근무 체계 내에서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3교대 근무와 위계적 조직문화 안에서 이직률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이에 간호사들이 처한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업무환경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간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한다면 간호대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전문직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적욕구와 외적환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임은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이들이 임상현장으로 나간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교과과정은 물론 비교과과정을 통괄하여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기조절, 사회적 책임 정도는 중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전문직관이 사회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자기조절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T. V. Lynda et al. (2009).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A Global Perspective.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10(2), 110-118. DOI : 10.1177/1527154409339528
- [2] M. A. Kelley, A. Connor, K. E. Kun & M. E. Salmon. (2008).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ualization and Embodiment in a School of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1-16. DOI / 10.2202/1548-923X.1607
- [3] J. G. Kim, T. W. Lee & N. K. Han. (2018).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21-29. DOI : 10.1111/jkana.2018.24.1.21
- [4] J. R. Han. (2018). The Effects of Metacognition and Self-leadership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393-400. DOI : 10.14400/JDC.2018.16.11.393
- [5] J. R. Han. (2019).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11-318. DOI / 10.14400/JDC.2019.17.5.311
- [6]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e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7]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8] J. Y. Kim & J. R. Kim.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435-441. DOI : 10.14400/JDC.2021.19.4.435
- [9] B. W. Chu. (2012). Self-Regulation and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0(29), 301-322. UCI : G704-001561.2012..29.012
- [10] E. J. Cho. (2020). Young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Self-Regulation and Moral Judg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20(3), 105-117. DOI : 10.21213/kjceec.2020.20.3.105
- [11] I. K. Kim & J. A. Kim. (2012). Self-Regulated Learning, Attention Control and Yangseng of Nursing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197-205. DOI : 10.5977/jkasne.2012.18.2.197
- [12]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3] S. S. Han, M. H. Kim & Y. E.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4] Y. S. Yoon. (2007). *A Study on Self-Regulatory Ability*

- of Adolesc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Parenting, Behavior Problems, and Life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5] S. Y. Shin. (2017). *The Types of Family Communication of College Student Influences on their College Life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Master's Thesis. Sunmoon University, Chungcheongna m-do.
- [16] J. S. Kim. (2000). *(The) Impact of Youth Service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Seoul.
- [17] I. H. Jeong. (2014). *Attitude and Commitment of College Students on Business Refer to Their Understanding of CSR*. Master's Thesis. Dong Eui University, Busan.
- [18]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19] K. I. Jung, H. G. Son & K. S. Jeong. (2018). The Factor Affect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3), 1595-1607.
- [20] O. S. Lee & E. J. Kim. (2018).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nsciousness of Bioethic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51-258. DOI : 10.14400/JDC.2018.16.4.251
- [21] S. Y. Choi & M. A. Lee. (2018). Effects of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Intent to Stay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3), 234-244. DOI : 10.11111/jkana.2018.24.3.234
- [22] H. K. Yoon, J. H. Choi, E. Y. Lee, H. Y. Lee & M. J. Park. (2013).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658-667. DOI : 10.11111/kana.2013.19.5.658
- [23] Y. S. Choi. (2014).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 Focused on " I "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695-2702. DOI : 10.5762/KAIS.2014.15.5.2695
- [24] E. S. Lee & M. S. Park. (2017).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311-320. DOI / 10.14400/JDC.2017.15.1.311
- [25] J. H. Yoo, E. Y. Cheon & H. J. Kim. (2020). Effects of Empathy, Self-control,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4), 82-90. DOI : 10.5762/KAIS.2020.21.4.82
- [26] J. Y. Park & C. H. Woo.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Good Cla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2), 185-197. DOI : 10.5977/jkasne.2020.26.2.185
- [27] J. Y. Park, C. H. Woo, J. H. Lee & J. M. Kim. (2018). The Impa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Learning Persistence Intention in Freshmen in Nursing Colle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Motiv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2), 127-136.. DOI : 10.5977/jkasne.2018.24.2.127
- [28] J. G. Kim, T. W. Lee & N. K. Han. (2018).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21-29. DOI / 10.11111/jkana.2018.24.1.21
- [29] M. S. Kim. (2021).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ocial Responsibil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4), 248-258. DOI / 10.11111/jkana.2021.27.4.248
- [30] E. H. Hwang & S. J. Shin. (2017).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97-108. DOI : 10.5932/JKPHN.2017.31.1.97
- [31]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한 주 량(Ju-Rang Han)

[장학원]



- 198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사)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1981년 3월 ~ 2003년 7월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수간호사/팀장
- 2003년 8월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경영지도실 국장
- 2014년 2월 ~ 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교육
- E-Mail : jrhan27@seojeong.ac.kr